

사랑하는 동역자 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전히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지만, 만유의 주재가 되신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없으셔서, 어느덧 이 땅에 선선한 가을을 주셨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아심과 강하게 아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 역대상 29:12 -

이 다윗의 기도처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권능을 통하여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주께 간구하며, 사랑하는 동역자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러운 시기에 맞는 추석 명절이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명절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지난 번 5월에 보내드린 기도편지를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기 이 전인 금년 초에, 은혜를 주셔서 11명의 성도들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각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나 큰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심으로, 감사함과 함께 9월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일어난 선교지의 상황들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지난 4월부터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나빠지더니, 5월부터는 지역 간 주민 이동의 통제가 시작되었고, 6월부터는 모든 집회와 모임들이 정부 명령으로 금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누적 확진자 수가 275,000 명을 넘어섰고, 1일 확진자 수도 4,700 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여러 형태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메단에 계신 여러 선교사님들 건강과 현지인 성도들, 그리고 스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선교지의 교회들도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다가, 근래에 들어 조금씩 교회에서 드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상황이 너무 어려운 형편입니다. 정부의 통제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메단 안티오키아 교회에서도 주보와 설교문을 프린트해서 성도들 각 가정에 전달하고, 각 가정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 많은 성도들이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현재로서는 온라인 예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그러던 중에, 교회 공동체를 그리워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너무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의 요청 때문에, 지난 8월부터, 교회의 개방된

공간에서 목장들이 매 주 번갈아 가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8개의 목장이 있는데, 매 주 주일날, 두 개의 목장씩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밀폐된 교회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한 활동공간을 임시 예배처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체 공동체가 모여 드려지는 예배는 아니지만, 성도들이 너무나 행복해 합니다.



* 저희 메단 안티오키아 교회에는 8개의 행복한 목장 모임이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잘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정부의 특별지시로 잠시 모임을 멈추고 있지만, 지난 3월 말까지 8개의 목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삶을 나누며,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행복한 모임이 계속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한 달에 한번 정도, 번갈아 가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서로의 얼굴을 대할 수 있지만, 헌신적인 목자와

목녀들의 섬김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전화로 소통하고, 전화가 어려운 목원들은 목자와 목녀들이 잠시 문 앞에 찾아가 안부를 묻고, 후원하는 분들이 교회에 전달하는 생활물품들이 생기면, 그 물품들을 기쁨으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저희 사택 근처에 사시는 집사님이 후원해 주신 쌀을 성도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고, 박 선교사 가족이 준비한 식품들과 마스크를 두 번에 걸쳐 성도들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선교지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일터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메단 안티오키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날 그날 일해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활 형편이 매우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이들을 도울 형편이 되지않습니다.

누군가 도와야 하지만, 도움의 손길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하며 바라기는,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도와 주신다면, 선교지의 믿음이

여린 성도들이 큰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 박 철수 선교사와 아내인 최 정순 선교사는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정적인 일도 있었고, 또 박선교사가 지난 3월에 당한 오토바이 전복 사고로 4개의 갈비뼈가 골절되고 오른쪽 어깨 인대 두 군데가 끊어져서 치료차 나왔고, 또 최 선교사의 치과 치료 때문에 귀국했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오는 10월 20일 경에 박 선교사가 먼저 선교지로 복귀하고, 그리고 최 선교사의 치료와 가정적인 일들이 정리가 되는대로 최 선교사도 복귀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몇 가지 저희의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은, 많은 분들이 염려하며 기도해 주셨던 저희 손주 찬이(저희 딸 새늘이의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기능들이 정상이 되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었그제 백일이 지났는데, 이제는 건강한 모습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 이 고난의 시기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박 철수, 최정순 선교사가 더 깊은 주님과 교제를 누리며 살도록.
2. 저희 부부의 건강 (최 선교사의 치아 치료, 박 선교사의 갈비뼈 골절과 어깨 인대, 그리고 정기 검진)을 위해서.
3. 메단 안티오키아 교회의 모든 목자들과 스텝, 성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시기를 지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회로 삼도록.
4. 10월 중에 박 선교사의 선교지 복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5. 주께서 속히 이 어려움을 풀어 주셔서 예배와 훈련, 특히 생명의 삶 훈련 개강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 지도록.
6. 지난 6월에 해산한 딸의 건강과, 주께서 주신 아기(이름: 이 찬) 를 주께서 축복하시도록, 그리고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아들(박 준영)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그 분과 동행하는 신실한 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7. 선교지 성도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도울 도움의 손길을 주시도록,
그리고 비대면 방송설교와 전도를 위한, 몇 가지 방송을 위한 기자재(카메라, 모니터, 마이크 등)들이 후원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샬롬 !!

예수의 푸른 계절을 꿈꾸며
인도네시아 메단 박철수, 최정순 드림